

청년 니트(NEET)의 월별 현황

- 청년 니트(NEET)의 수가 2011년 2월에 167.5만 명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일을 하지도 않고 일 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을 일컫는 용어로서 영국, 일본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니트는 교육, 훈련, 일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임¹⁾.
 -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니트의 수는 <표 1>에서 보듯이 2011년 2월 167.5만 명으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 청년 니트가 15~3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4%로 더욱 높아졌음.
 - 이는 전년동기의 162.3만 명에 비해 5.2만 명 증가한 것이며, 지난달인 2011년 1월의 139.4만 명에 비해 28.1만 명 증가한 것임(표 2 참조).

<표 1> 니트 현황 : 2월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니트	1,381 (9.3)	1,482 (10.2)	1,591 (11.1)	1,524 (10.9)	1,438 (10.4)	1,417 (10.3)	1,531 (11.2)	1,623 (11.9)	1,675 (12.4)
비구직 니트	914 (6.2)	999 (6.8)	1,134 (7.9)	1,080 (7.7)	1,055 (7.6)	1,071 (7.8)	1,149 (8.4)	1,216 (9.0)	1,284 (9.5)

<표 2> 니트 현황 : 1월

(단위 :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니트	1,234 (8.3)	1,285 (8.8)	1,348 (9.4)	1,343 (9.6)	1,316 (9.5)	1,238 (9.0)	1,338 (9.8)	1,405 (10.3)	1,394 (10.3)
비구직 니트	798 (5.4)	826 (5.7)	908 (6.3)	948 (6.8)	939 (6.8)	901 (6.6)	990 (7.2)	1,003 (7.4)	1,032 (7.6)

1) 보다 자세한 것은 남재량(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3월호 참조.

- 니트 가운데에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도 않은 ‘비구직 니트’가 특히 중요한데, 이들의 수가 128.4만 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
 - 니트 가운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즉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는 대부분 실업자에 해당하며 청년 실업 차원에서 접근하면 됨.
 - 그러나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는 일을 하지도 않고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일을 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자리를 알아보고도 있지 않는 청년임.
 - 이들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 128.4만 명으로 전년동기의 121.6만 명에 비해 6.8만 명 증가하였음.
 - 지난 달인 2011년 1월의 비구직 니트 103.2만 명과 비교하여 보면 25.2만 명이나 증가하였음.
 - 비구직 니트의 15~34세 인구에 대한 비율을 보더라도 2011년 2월에 9.5%를 기록하고 있어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비구직 니트 비율은 표에서 보듯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결과임.

-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노동력화하고 있는 비구직 니트의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
 - 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학교, 가정, 사회 등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KL**

(남재량, 노동정책분석실장)